# 기신론을 전한 역경보살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범어 원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신론은 두 가지 번역본이 있다. 하나는 진제(眞諦: Paramartha, 499~569)의 역본이고, 다른 하나는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 652~710)의 역본이다. 이 가운데 진제 역을 구역(舊譯), 실차난타의 역을 신역(新譯)이라 하지만 아직도 진제의 역본이 많이 유통되어 있다.

진제는 서인도 우선니국 바라문 출신으로 양무제가 사신을 부남(扶南: 현재 캄보디아에 세워졌던 고대왕국)에 보내 고승과 경전을 모셔오고자 했을 때 무제의 청에 의하여 546년에 중국에 들어왔다. 많은 경론을 가지고 처음 해남에 도착했다가 광주를 거쳐 548년 양(梁)의 수도였던 건강(建康)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역경에 종사하려 했으나 때마침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후경(侯景)의 난이 일어나 무제가 유폐되고, 후경이 왕권을 잡았다가 후경마저 살해되는 난리의 소용돌이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를 초청한 무제가 사망하자 그는 후원자를 잃고 각지를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유랑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경론을 번역한다.

기신론과 무착의 〈섭대승론(攝大乘論)〉도 이때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번역된 것들이다. 그는 한때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76부 315권의 경론을 번역하여 역경의 공로자가 되었으며 구마라습, 현장, 불공(不空)과 더불어 중국 역경사상 4대 역경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후진(後秦) 요흥(姚興)이 세워준 번역도량에서 수많은 불교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번역에 종사했던 구마라습이나 당(唐) 조정의 지원을 받으며 대자은사에게 많은 물자의 공급을 받으며 번역에 종사했던 현장과는 너무나 다른 진제의 역경 환경은 비참했었다. 그는 곤궁에 시달리자 다시 인도로 돌아가려 했으나 실패하여 죽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임시 숙소에서 번역 작업을 계속하였다. 때로는 강경 · 강론에도 힘썼다. 그는 주로 인도 유식학파의 무착이나 세친의 논서들을 번역해 중국에 유식사상을 소개하였다. 그가 죽은 후 섭론종이 성립되면서 그를 개조(開祖)로 모시었다. 중국불교의 13종 가운데 섭론종의 개조(開祖)가 된 것이다. 기신론 외에도 그가 번역한 대표적인 논서는 〈섭대승론〉, 〈섭대승론석〉, 〈구사석론〉, 〈중변분별론〉, 〈전식론〉, 〈십칠지론〉 등이 있다.

### 진제 · 실차난타, 두 번역본 존재
### 두 역경가 동아시아에 큰 영향

신역 기신론의 역자 실차난타는 총령의 북쪽에 위치한 우전국 출신이다. 학희(學喜)로 번역되는 그는 대 · 소승에 통달함은 물론이고 박학다식하여 외전에도 밝았다 한다.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우전국에 〈화엄경〉의 범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범본과 번역할 사람을 모셔오도록 하였다. 이에 당나라 증성(證聖) 원년(695)에 화엄경 범본을 가지고 낙양에 온 삼장(三藏)이 바로 실차난타였다. 그는 대편공사(大遍空寺)에서 남인도 출신 보리유지(菩提流志: Bodhiruci)와 의정(義淨) 등과 함께 화엄경 번역을 시작하였다. 이때 측천무후가 직접 역장(譯場)에 찾아왔으며 서문을 짓기도 하였다. 중간에 절을 옮겨 완성은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하였다. 복례(復禮), 법장(法藏) 등의 도움으로 성력(聖歷) 2년(699)에 번역을 완성했다. 이것이 80화엄이다. 이때부터 80화엄이 유통되면서 중국에서 화엄경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실차난타가 번역한 경전은 80화엄이 가장 공들인 것이었으나 그 외에도 기신론, 능가경(대승입능가경 7권), 문수수기경 등 19부를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차난타에 관한 기록은 개원석교록과 송고승전에 전해진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노모를 만나기 위하여 704년에 우전국으로 돌아갔다가 중종의 청으로 708년에 다시 장안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710년 10월에 59세의 나이로 입적을 하였다. 화장을 했을 때 혀가 타지 않고 남았다 한다.

# 재물 많아도 마음이 없다면 베풀겠는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㊵보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無信心者誰信是語。設有美食有飢者在前不能施與。是人食 不能施與。況勝解脫能施與人。設令多有財物有來乞者。 無施心。況施少物。不見是人於生死中有少樂處。適可住於涅槃。若人於大水邊不能以少水施與。生死之中苦惱無量。汝莫在中住。適可速入般涅槃。如有大水欲施人不以為難。如有悲心欲取涅槃亦不為難。世間糞土易得於水。 貪之人聞乞糞土猶懷慳惜。況復財物。(무신심자수신시어。설유미식유기자재전불능시여。시인식상불능시여。황승해탈능시여인。설령다유재물유래걸자。상무시심。황시소물。불견시인어생사중유소락처。적가주어열반。약인어대수변불능이소수시여。생사지중고뇌무량。여막재중주。적가속입반열반。여유대수욕시인불이위난。여유비심욕취열반역불위난。세간분토이득어수。간탐지인문걸분토유회인석。황부재물。)**

번역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만, 설령 맛난 음식이 있고 목전에 주린 이가 있어도 보시할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이 음식을 늘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수승한 해탈을 남에게 베풀어줄 수 있겠는지요. 설령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구걸하는 이가 왔을 때 오히려 베풀 마음이 없다면, 설령 적은 재물인들 베풀까요. 이런 사람은 생사 가운데 조금이라도 즐거운 곳이나 열반에 나아가 머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큰 물가에서 적은 물도 베풀어줄 수 없다면, 생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속히 나아가 반열반에 들어야 합니다. 큰 물가에 있으면서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자비심이 있으면 열반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흙도 물가에서는 얻기 쉽거늘 인색하고 탐욕스런 사람은 더러운 흙을 구걸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속으로 아까워하거늘, 하물며 재물이겠습니까.

해설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또 그 정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도 말하기를 "젊은이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젊은이들이 게을러진다"고 했다. 더 나아가 "가난해야 열심히 일한다", "가난해야 애를 많이 낳는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근래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군비에 사용될지 모른다며, 인도적 구호조차 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서 무엇을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일까. 남에게 베풀면 내 남은 것도 뺏어 가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허투루 소비할지언정, 국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복지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이다.

이런 현상 앞에서 불법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세상은 어쩌면 불법의 이상적 세계관과 이렇게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보살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 보살행마저 부인한다면 세상이 정말 서글퍼지니까. 본문에서의 반열반(般涅槃)은 '완전한 깨달음'을 뜻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面上無瞋 供養具)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口裏無瞋 吐妙香)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心裏無瞋 是眞ᄃᆡ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無染無垢 是眞如)"

어떤 분이 번역했는지는 모를 일이나 원문의 뜻은 살리되 부드럽고 아름답게 한글로 옮기신 그 법력(法力)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유명한 게송은 '문수동자게(文殊童子偈)'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게송을 전한 무착 스님의 수행력이 담겨있는 '무착게(無着偈)'이기도 한 것이다.

무착 스님이 문수동자를 만난 이야기는 〈송고승전〉20권에 담겨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무착은 당나라 때 스님이다. 그의 스승은 화엄학의 제4조인 징관스님이다. 스승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우고 익혀 화엄사상에 통달하게 된다.

그 무렵 들려오는 소문에 오대산의 북대와 동대사이에 루관곡이라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에는 금강굴이 있는데 가끔씩 문수보살이 화현(化現)한다는 것이었다. 무착은 문수보살 친견을 위해 루관곡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금강굴은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무착 앞에 나타나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스님은 이곳 계곡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금강굴을 찾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착의 대답을 듣고 노인은 안내하겠다며 손짓으로 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황금빛 아름다운 사찰이 나타나 있었다. 사찰에 이르자 한 동자가 사찰의 문을 열어준다.

법당과 탑이 황금으로 장엄된 황금사찰이었다. 유리잔에 담긴 차(茶)까지 대접 받은 후 무착은 슬그머니 하룻밤 묵고 갈 뜻을 비친다. 그러나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게송을 들려주는데 그 뜻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칠보(七寶)로 만든 건물이나 탑은 언젠가는 무너져 티끌이 되지만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깨달음에 이르면 이는 천년만년의 보배가 된다'는 무착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사찰의 문 밖으로 나오며 무착이 동자에게 절 이름을 묻자 '반야사'라고 짧게 답한 뒤 동자가 게송을 읊는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로 시작되는 게송이었다. 게송을 듣고 무착이 합장으로 고개 숙여 동자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고개를 들자 동자도 반야사도 사라지고 절벽을 이룬 바위산 뿐이었다. 그때 허공으로 문수보살이 사자(獅子)를 타고 사라지고 있었다.

그 후 무착은 더욱 간절심으로 수행에 몰입하게 된다. 무착이 하루는 동지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타고 문수보살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무착 스님은 문수보살을 향해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갈기며 사자후를 내뱉었다.

"문수는 네 문수지 내 무착이 될 수 없다. 무착이 그대로가 무착이거늘 문수따위는 필요없다."

이쯤은 되어야 장부(丈夫)중의 장부인 조어장부(調御丈夫)라 할 터이다. 이전의 무착은 화엄학의 제4조인 징관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워 스스로 화엄학의 통달자라 자처했으나 이론과 원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만으로는 진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소문을 듣고 오대산에 오르는 모습은 타력신앙(他力信仰)의 목마름이었기 때문이다.

황금사원과 유리찻잔에 마음을 두어 하룻밤 머물기를 희망하는 배고픔이 남아 있었다. 문수보살이 곁에 있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 챙김에 소홀했던 것이다. 사자를 타고 구름사이로 사라지는 문수보살을 지켜보며 업덩이 중생임을 자각하는, 후회로 남는 무착이었다.

그 후 무착은 간절심으로 마음을 모아 정진을 거듭해 참사람(眞人)이 된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무착 스님은 뜻을 이룬 후 일상(日常)으로 되돌아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 팥죽을 끓이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생활시도(生活是道)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팥죽의 김을 타고 문수보살이 나타났으나 무착 스님은 서슴없이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는 조어장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원하고 개운한 교훈적인 설화이다.

### 선지식은 좋은 스승이자 착한 벗
### 수행정진 통해 '조어장부'로 나가야

법인설립허가번호 : 제2012-43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특허청 업무표장특허등록 제 42-0005657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 정 경담 장각성
총무원장 장운 운산

사회복지 의료재단 전국지부모집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JOGYE ORDER KOREA BUDDHISM &CORPORATION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20-8270 FAX 02)720-8271 http://jogyejong.or.kr / E-mail:jonggyo119@hanmail.net